

365일 안전수칙 생활화... 해남군 '안심도시' 비전 선포

교통사고·화재·감염병 등 예방 일상 속 6개 분야 실천 운동 음주운전 근절·333 칫솔질·불법 소각 금지 등 주민 동참 호소

해남군이 군민 모두가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해남군은 최근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해남교육지원청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15개 사회단체 등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안심도시'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군의 안전수준을 살펴보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최,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민관 공동협력 협약과 공동실천 결의, 안전도시 조성 선포와 함께 실천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대행사로 진행된 '해남형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실천 홍보 가두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이용해 ▲군민과 함께 지키는 안전한 해남 ▲음주운전 근절 ▲안전벨트 착용하기 ▲불법소각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이륜자동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 ▲노후콘서트 교체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333칫솔질 실천 ▲수시로 손 씻기 ▲1일 30분 이상 걷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동

참을 호소했다. 해남군이 추진하는 안전문화 운동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범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일상생활 속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전 군민이 참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며, 전 군민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선포식과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은 해남군이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이뤄지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안전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안전안심도시 해남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이 지난 5일 '안전안심도시'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부대 행사로 청사 앞에서 '해남형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실천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해남군 제공>

완도선의 역사적 의의·미래 활용 가능성 재조명

완도군-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굴 40주년 국제학술대회 관광 자원화 가능성 등 제시

완도군은 최근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4년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바다에서 발굴된 완도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한선(韓船)으로, 고려청자 3만여 점이 함께 출수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완도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완도선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 활용 가능성 등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민족문화유산연구소, 목포대학교, 완도문화원, 호림박물관, 세종문화재연구원 대중고고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중 발굴 최초 한선 완도선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한선 연구의 발전 방안과 관광 자원화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난 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선 발굴 40주년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완도군 제공>

발제자들은 고려청자가 공남옹이 아닌 상업 유물의 일환으로 전남 서남해안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활발히 거래된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완도가 지방 상업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가능했음을 재조명했다. 또 종함도론에서는 대만,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완도선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완도 지역의 해양사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장보고 시대의 찬란한 해양 문화를 연구 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뜰뜰한 진도개 총출동~ 진도서 우수견 선발

진도개테마파크서 성료 개·반려인 '축제의 장' 마련

진도군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우수진도개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보호·육성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진도개 반려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4두의 우수한 진도개가 출전해 외형, 품성, 핸들링 등 열띤 경합이 펼쳐졌다. 2년 이상 성견에게 수여하는 진도군수상(대상) 관내는 김용길씨의 '초희'(암), 강성홍씨의 '수범'(수)이 차지했다. 관외는 서울 성동구 양완석씨의 '다운'(암), 충북 청주 권대식씨의 '강호'(수)가 대상과 함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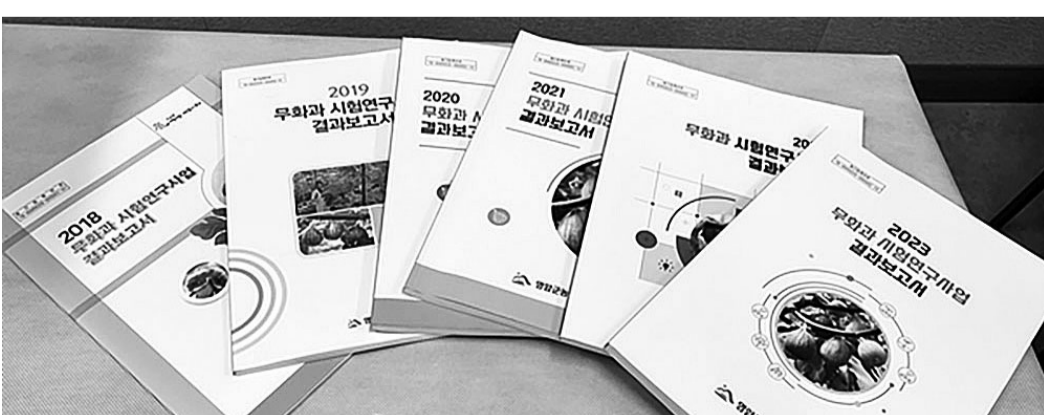
김희수(왼쪽 세번째) 진도군수가 '대한민국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한민국 우수진도개 선발대회를 통해 진도개의 품격과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화과 지적재산권 영암군, 3종 획득

봉지씨우기 등 디자인 상표 내년부터 농가에 시범 운영

영암군이 무화과 지적재산권 3종 획득을 획득했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재산권 3종 획득 등을 포함한 무화과 연구 성과를 알리는 '2024년 무화과 연구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과보고회는 '해충방제', '신품종', '고품질 생산' 3개 주제로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 봉지씨우기 ▲우량 무화과 재배기술 확립 ▲겨울철 무화과 탄산시비 등의 효과를 논의하고, 무화과 농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총채벌레 방제 무화과 봉지씨우기 연구사업으로 2023년 디자인등록, 2024년 봉지씨우기 특허기술 획득 및 '기찬춤이망' 상표등록으로 3종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으며 농진청의 '2025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발굴해 내년부터 농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



무화과 시험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영암군 제공>

무안군, 3만5109가구 주택 기초조사

27일까지 주소·빈집 여부·건축시기 등 14개 항목

무안군이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총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주와 약 3만5109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주소, 거주 종류, 빈집 여부, 건축시기, 주거시설형태 등 14개 항목이다.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5-30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에서 제외하며 조사원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앞서 무안군은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요원 24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침과 현장조사 요령에 대해 교육했으며 태블릿 pc를 활용한 실습도 병행했다. 강건선 무안군 기획실장은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 방문 시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의료봉사 25년 치과의사 '나눔국민대상'

목포 연세이가지리-치과 장성호 원장 국무총리 표창

목포 연세이가지리-치과 장성호(사진)원장이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장성호 원장은 치과의사인 부인 김현주 원장과 함께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 재학 중에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 25년을 지속해서 진행했다. 20년간 최중증장애인 100명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가족주거시설을 방문해 매월 치과봉사활동(1회당 4-5명), 정기 후원(연간 1000만원), 생필품, 의류 및 명절·성탄절 선물 등을 후원(연간 2000만원)하고 있다. 또 시설 내 연구자가 없는 12명의 중증장애인지원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매월 1인당 5만원의 후원(목포 장애인 요양원)하고, 2013년부터 11년간 소망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진료 봉사를 했다. 2015년부터 매년 목포의 성실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6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연간 1000여만원)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빈민촌과 인도네시아 고아원, 캄보디아 바탐방 빈민촌, 몽골 등의 봉사자에게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성호 원장은 "소외되고 열악한 곳을 찾아 약



으로도 더 나눌 수 있는 진료와 봉사를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으로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전국 9위'

컨슈머인사이트 조사... 지난해 48위서 39계단 상승

진도군이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2024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9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여행 전문 연구·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국내로 1박 이상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077명을 대상으로 여행 만족도와 추천 의향, 여행자원 매력도(먹거리·볼거리·실거리·놀거리·살거리), 여행환경 쾌적도(물가·상도·교통·편의시설·청결 위생·안전 치안) 등을 조사해 기초지자체 별로 평가했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윤희산방' '토요민속공원' '신비의 바닷길' '썰비치 진도' 등 볼거리와 실거리 면에서 호평받아 전년도 48위에서 9위로 39계단 수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진도군이 가진 매력적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중 하나인 민속문화유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해경, 71주년 기념 '도서 71권' 기부

청소년 문화의집에

완도해양경찰은 해양경찰 창설 71주년을 맞아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서 71권을 기부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는 곳이다.

완도해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키우고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문학·역사·과학 등 여러 장르의 도서를 선별해 전달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차림 넓은 꿈을 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